

# 전주 매력 담은 여행상품 출시

시, '전주 여행상품 및 음식 여행상품 공모전' 수상작 13개 선정  
소셜커머스·온라인 플랫폼 여행 서비스 '전북엔피' 통해 판매

판소리와 댄스, 노래가 결합된 공연을 본 뒤 전주가객을 체험하거나 야간에 전주향교와 청연루 일대를 따라 걷는 여행상품이 대거 출시됐다.

전주시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주)전주관광마케팅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전주 여행상품 및 음식 여행상품 공모전'에서 '미감 만족 전주, 아름다운 정원 밥상' 등 1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관련 여행상품들을 출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먼저 전주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주 여행상품 공모전에서는 6개 상품이 발굴됐다.

판소리 댄스컬 '동연·서동의 꽃'과 전주가객을 결합한 글로벌투어의 여행상품을 비롯해 전주향교, 청연루 일대를 도보로 여행하는 평화행복여행사의 '오래된 맛, 색다른 길 인스타그램 핫플 따라하기' 등 전주의 숨은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선정됐다.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전주 음식 여



'전주 여행상품 및 음식 여행상품 공모전 수상작.'

여행상품을 여기어때,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와 전주시 향토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여행 서비스인 '전북엔피'를 통해 출시했다. 여기에 시는 다음 달 2일 카카오쇼핑리아브 특별기획전을 열고 대규모 사전예약을 유도키로 했다.

여행상품은 쿠팡, 티몬, 여기어때, 전북엔피에서 '전주 여행상품' 또는 '전주음식 여행상품'을 검색하면 확인·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전주관광마케팅(063-231-99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주)전주관광마케팅은 지난 20일 여기어때, 티오픈, 우리동네피, 전북엔피 등, 홍보마케팅 파트너사들을 초청해 '미감 만족 전주, 아름다운 정원 밥상' 여행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전주지역 여행상품의 디지털화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직무연수 유치

1기 직무연수 개최… 내년 6월까지 6번에 나눠 진행

전시·회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전주시가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교육 전문직들이 참여하는 직무연수를 유치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1기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1기 직무연수(2030 미래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시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에 지급하는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뤄졌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의 직무연수는 이번 1기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6번에 나눠 진행된다.

6번의 행사에는 총 600여 명이 넘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 행사 전·후 전주에 머무를 예정이어서 시는 관광 및 숙박 등 지역경제에 과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주요 학회를 대상으로 회의 및 학술대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지역 주요 호텔들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4월 대한전자공학회 심포지엄을 유치한 바 있다. 또 2022 아래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등 국내 전시·회의 박람회에 참가하고 지역 대학과 기관을 방문하는 등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한편 1960년 11월 설립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전국 중·고등학교장과 교장 출신 교육 전문직 등 6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학회로, 정기적인 직무연수 등 한국 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 '전주문화재야행' 높은 인기 속 성황리 마무리

경기전·전라감영 애경·역사 활용 22개 프로그램 운영 등 온·오프라인 개최

전주한옥마을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며 역사와 놀이, 체험 등을 즐기는 전주문화재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지난 22일과 23일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2021 전주문화재야행(夜行)'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문화재출사의 팔(八) 아침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재야행은 경기전과 전라감영의 애경과 역사를 활용한 총 22개 프로그램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다. 지난 6월에 열렸던 1차 애행에 이어 이번 애행에서도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왕과의 산책 △경기전 좀비 실록 △치유의 경기전 △사진으로 만나는 문화재의 밤 △지역 예술가 무대 △태조와 애행이를 만나다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전라감영 애와 방 탈출 게임 등이 펼쳐졌다.

온라인에서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전주문화재 VR 건설 프로젝트 △마인크래프트 전주 건설 영상 제작 △한밤의 '계' 이득 △거리의 화공 △카카오톡 방 탈출 대국민 O·X 퀴즈 △전주야행 온라인 커머스 등이 운영됐다.

이번 전주문화재야행은 짧은 문화기획자의 참여를 통해 도전적 시도로 더욱더 짧은 감각으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틀을 깨고 관광객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방문객들과 함께 문화재야행을 완성했다는 평이다.

특히 경기전·전라감영 애경·역사 활용 22개 프로그램은 전주시의 역사와 문화재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경기전' 등이 참여자들의 신선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4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꼭 가봐야 할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저소득층 노인 디지털 역량 강화 '맞손'

전주시-KTcs,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기초 활용교육 지원

전주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최신형 스마트폰이 보급된다. 스마트폰 이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는 별도의 활용교육도 지원되는 게 핵심이다.

전주시와 KTcs(호남본부장 이명훈)는 22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소외계층인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스마트폰 기초 활용교육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KT플리자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및 특화요금제를 제공, KTcs에서는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형) 100명은 다음 달부터 KT플리자 전주점(경원동) 또는 북전주점(덕진동)에



전주시와 KTcs는 22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소년 위한 축제 'Play Again, Fly Again!' 개최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11곳

의 공동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축제 'Play Again, Fly Again!' 연합행사를 비대면(유튜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의 마음

에 행복과 설렘을 안겨주고자 마련된 행사는 청소년 현장 담독, 우수청소년 시상, 치어리딩·밴드·댄스·걸림바 등 청소년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 사전 예약을 통한 키트가 각 청소년 시설에 배부돼 안전한 환경에서 씨앗심기, 하마리울 조명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이뤄졌다.

/김윤상 기자

